

1개소는 마을 입구에 있어 팽나무로 되어 학의 형곡이라 하여 이 성황에 당집을 짓거나 주위에 돌을 쌓으면 해가 된다고 하여 그대로 모시고 있으며,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

제14절 두천1리(斗川一里)[속명 : 바깥말래]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말래에서 내려가는 물이 하당리(下塘里)로 흐르고, 서쪽은 샛갯봉(笠峯) 지맥(支脈)이 뻗어 내려오는 곳에 심씨(沈氏) 부부의 효자각(孝子閣)이 있으며, 북쪽은 뒷재 넘어 상당리(上塘里)가 있다. 마을회관은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최근에 마을 입구에 십이령민속촌이 조성되어 있다. 십이령고갯길로 오르는 초입에 ‘울진내성행상불망비’를 모신 비각이 있으며, 바로 뒤편에 김태희 선정비와 고갯마루에 심천범 효자각과 성황당이 있다.

2. 마을의 역사

1800년경에 이 마을을 개척하여 말래(斗川)라 이름하였다. 이곳은 영남내륙과 한양(漢陽)으로 가는 울진십이령(嶺)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울진현령이 부임할 때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 가는데 어느 날 현령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안말래(內斗川) 장평(長坪)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자고 나니 타고 온 말이 간 곳 없어 종일 말을 찾다 보니 바깥말래(外斗川) 다래덩굴 밑에서 말을 찾았다. 이런 연유로 마을을 마래(馬來)라고 부르다가 현재의 두천1리(斗川一里)인 바깥말래(外斗川)로 정착했다. 또 십이령바지계길을 통한 주요 물산이 부구리 흥부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미역이므로, 이곳 말래 주막촌에서 선질꾼[십이령바지계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수량 단위인 ‘말 두(斗)’를 차용해 말래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3. 가구 분포

총 41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청송 심씨(靑松沈氏)와 삼척 심씨(三陟沈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내성행상불망비(乃城行商祿不忘碑)

울진 내성행상불망비는 조선 말기 울진과 봉화를 오가며 어류·소금·해조류 등을 쪽지개에 지고 가서 곡식·의류·약품·잡화 등과 물물 교환하며 상행위를 하던 상인들이 그들의 상거래에 많은 도움을 준, 당시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살고 있던 봉화 사람 접장 정한조와 안동 사람 반수 권재만의 공을 잊지 못하여 그 은공을 기리고자 세운 불망비이다. 북면 두천리 지역의 주민들은 선질꾼비라고도 한다. 권재만 비의 크기는 높이 94.5cm, 폭 24.8cm, 두께 2.1cm이며, 무게는 29.4kg이다. 정한조 비의 크기는 높이 93.3cm, 폭 23.1cm, 두께 2.2cm이며, 무게는 26.4kg이다. 울진 내성행상불망비는 비신(碑身)과 비수(碑首)를 하나로 주조하였으며, 비수의 문양과 비신의 글씨는 앞면에만 양각으로 주조하였다. 비신 가운데에는 세로로 “내성행상접장정한조불망비(乃城行商接長鄭漢祿不忘碑)”와 “내성행상반수권재만불망비(乃城行商班首權在萬不忘碑)”라는 명문이 각각 양각되어 있다. 1995년 6월 30일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10호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에 지금의 보호각을 세우고 2006년에 보존처리를 하였다.

2) 성황당(城隍堂)

성황당이 2개소가 있는데, 마을 안에 있는 성황당은 수령 수백 년이 되는 팽나무와 당집으로 되어 있고, 물 건넌마을에 있는 성황당은 수령 500년이 넘는 굴참나무와 당집으로 되어 있다.

제15절 두천2리(斗川二里)[속명 : 안말래]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형제봉(兄弟峯)이 솟아있고, 서쪽은 안일왕성(安逸王城), 남쪽은 악구산(岳丘山), 북쪽은 세덕곡산(細德谷山)이 있으며, 안말래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깥말래를 거쳐 울진 남대천으로 흐르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어 현재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